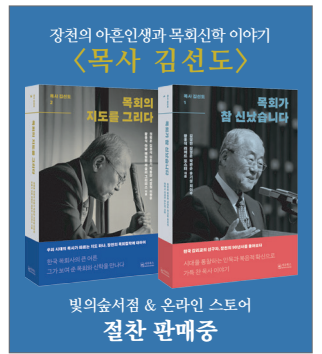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봄학기 | 역대상·하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I will heal this Land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영적갈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역대기 상·하 말씀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진행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패턴과 방식,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와 강의를 하는 요즘 광림교회도 이에 맞추어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홈페이지와 유튜브로도 생중계하고 있다. 또 유튜브라이프, 어번던트 라이프, EBA 영어성경공부 등 말씀공부 프로그램도 개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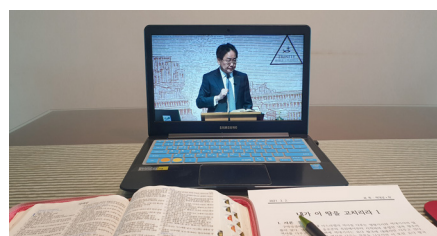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영적갈증을 채워 줄 가장 강력한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모든 일정과 행사가 중단되었는데 올해는 힘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자.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믿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봄학기는 역대기 말씀이다. 주제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대하7:14)이다.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전만 진행)



역대기는 ‘여호와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즉위까지의 기록,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시대를 기록,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의 분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포로

귀환의 조서가 되기까지의 기록으로 구분하고 있다.

츄즈 라이프

신약의 강과 구약의 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성경 가이드 교육이다. 츄즈 라이프는 매년 2번(상반기, 하반기) 개강, 매 학기마다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가며 12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간 구약 전체를 배우며 성경의 맥을 잡아간다. 조성한 목사의 강의로 주일 오전 9시 본당 지하 1층 두란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어번던트 라이프

성경과 교리, 교회 역사 등 더 깊은 차원의 배움과 경험을 위한 성경공부이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도록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거나 감리고, 종교개혁 등을 배운다.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정용식 목사의 강의로 본당 지하1층 두란노 강의실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번 학기 주제는 ‘한국교회 처음이야기’이다.

EBA(English Bible Academy)

이선우 권사(한국외대영어학장 역임)의 강의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NIV한영성경으로 공부한다. 강의는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간 매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본당 지하1층 양의문에서 진행된다. 3월 14일(주일)까지 본당로비에서 등록을 받는다. (문의: 양정순 장로 010-8545-1945)

이밖에 <새가족 위원 교육>도 진행 중이다.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4주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새가족실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1주: 새가족 위원 교육목적 및 체계 / 2주: 새가족 교육 시범운영 및 사례교육 / 3주: 새가족의 이해 / 4주: 소통의 통로이다. (문의: 새가족위원회 02-2056-5716)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열매 맺는 삶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셨던 이유는 영적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제도나 관습에 가려진 참된 신앙을 들춰내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이 무엇인지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와 관습을 지키며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스티븐 아터번과 잭 펠튼의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에는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인격적인 변화는 없이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며 종교적인 제도와 관습만을 따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혼과 진정성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막고 참된 구원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앞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결단 반지르르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삶, 곧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깨우쳐 줍니다. 본문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본문의 무화과나무는 앞만 무성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들도록 저주하십니다. 언뜻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굳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필요까지 있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무화과’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파게’와 ‘테에나’로 나뉘부릅니다. 파게는 유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이고, 이후 긴 여름 동안 다섯 번의 열매를 더 맺게 되는데 이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는 짧고 시고 맛이 없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그네 혹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되고, 누구든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 열매인 파게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앞만 무성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며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가 없고 배를 채워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영적 빈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보살피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종교 제도와 관습으로 억압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맺고, 이를 대가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든 나를 통해 배부름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마태복음 21장 18~22절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시니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없는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열매 맺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21-22절)고 말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찾으셨던 것은 아마 다른 무화과나무들에 비해 풍성해보여서 좋은 열매를 더 맺었을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가셨던 ‘벳바게’와 ‘벳다니’는 모두 무화과가 많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화과나무 중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막상 가까이서 보니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외식적인 신앙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생명력

이 없는 죽은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기도하지 않는 믿음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영혼도 회복되는 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만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믿음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보란 듯이 기도했지만,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실상 외식적인 행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22절)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제41회 강남지방회 개최

장로 안수식, 은퇴 장로 찬하예배, 별세 장로를 위한 추도예배 열려



서울남연회 제41회 강남지방회가 2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지방회원, 구역대표 및 시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흥헌 감리사가 담당하 1차 회집에서는 개회예배 및 성찬식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근속장로 표창은 박호건, 김경래, 김분환, 장세근 장로가 받았으며, 공로표 표창은 신동우 장로가 받았다. 이어진 전도, 성경통독, 성경필사부문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임옥주 권사가 25명을 전도하여 전도상을, 정환명 권사가 성경을 15독하여 성경다독상을 수상했다.

2차 회집에서는 장로 안수식, 은퇴장로 찬하예배, 별세장로 추도예배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장로안수식에서는 광림교회 한상국, 권정숙, 양상식, 김일환, 김두원, 김진섭, 서명관, 김홍철 장로가 안수를 받았으며, 박호건,

신동우 장로가 은퇴를 했다.

이어 최근 별세한 이양호, 이철현 장로에 대한 추도예배에서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두 분 장로님은 광림교회를 위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잠시 안식하고 있을 뿐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로님에 대한 마지막 인사는 ‘good bye’가 아니라 ‘good night’이며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족과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서울남연회, 미자립 교회 위한 <나세남 프로젝트> 진행

140개 교회 재정 지원과 목회 훈련, 광림교회가 중추적 역할 감당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는 2월 25일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서울남연회 모든 교회 나눔과 세움을 위한 ‘2021년도 나세남 프로젝트 개회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 <나세남 프로젝트>에 선정된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증서와 지원금 전달 및 서약서를 작성하며 교육을 실시했다. 광림교회와 김정석 감독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나세남 프로젝트는 광림교회 슬트 플랜에 이어서 미자립 교회 재정 지원과 훈련, 목회 프로그램 지원, 도서 출판 등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

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남연회에 속한 교회 중에는 166개의 미자립 교회가 있다. 나세남 프로젝트는 지원대상 교회를 A, B그룹으로 나눴다. 이번 신청한 100개 교회 중 A그룹으로 선정된 80개 교회는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재정 지원과 연간 3회 교육을 실시한다. B그룹은 나머지 20개 교회와 지방 감리사들이 추천한 30개 교회, 서울남연회에 속한 군인사역자 10개 교회를 합쳐 모두 60개 교회를 선정 2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도 활동을 도와주고, 목회자 부부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석 감독은 “어떻게 하면 연회를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세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두가 어렵지만 동역자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뜻과 마음을 모아 나누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주님의 열심을 닦기 원한다”고 했다.

이번 나세남 프로젝트에 선정된 교회 목회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감사와 다짐을 전했다.

“세워주시려는 모습 속에 가슴이 뭉클하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세남 프로젝트로 진정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기회와 사랑을 얻었으니 2년간 서울남연회에서 제공해주시는 훈련의 장에 열심히 참석하고 배워서 준비된 참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된 것은 단순히 재정적 도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목회에 적용되는 나누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연회에 소속된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든지 품고 살리려는 아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광림교회, 교정시설 후원 감사패 받아

만장과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석 감독은 “세상에 선한 일을 통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 되길 바랍니다. 서울남연회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돕고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용해 소장은 “코로나 감염이 심해져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때 귀한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용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을 비롯한 연회 임원들은 이번 나눔을 통해 구치

소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길 기대했다.

광림교회는 마스크와 위문 금품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교정기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림교회는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섬김과 나눔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포토 뉴스



트리니티성서대학원
봄학기 트리니티성서대학원
3월2일 개강했다.



광림장학금수여식
3월 7일 광림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츄즈라이프 / 어번던트라이프
츄즈라이프 / 어번던트라이프가
3월 7일~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여선교회 3월 월례회
3월 7일, 여선교회 월례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 3/2 트리니티 개강
- 3/4 KMC & UMC 선교협력회의
- 3/5 감리교군목단 간담회
- 3/7 장학금수여식
- 3/11-12 감독회의
- 3/14 남선교회 서울남연회 총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지난 1월 8일 교정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서울구치소(소장 신용해)에 마스크 5

내 인생의 말씀

사랑의 종소리

어릴 적 동네 언덕 위 교회에서 새벽이면 어김없이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불교 집안이었던 내게 교회 종소리는 귀찮은 자명종 소리로 들렸다. 대학 시절 뜻이 맞는 몇몇 선배들과 호창초등학교와 종로 YMCA에서 구두를 닦거나 신문 파는 어린 소년, 혹은 공장에 다니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했다. 그때 가르친 300명의 제자들이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가슴 뿌듯한 일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겨울날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 김은미 권사의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귓가에 작은 종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1982년 봄 결혼 후 첫 주일 아내는 드디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았으며 배밭을 지나 광림교회로 안내했다. 태어나서 교회는 처음이었다. 나는 광림교회에서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후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운영하면서 일에 쫓겨 살 때 뜻하지 않게 대장암으로 대수술을 하게 됐다. 병상에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 주님께 매달릴 때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시 121:5~6)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수술 당일 새벽에 귀에 익은 종소리에 잠이 깬데 누워있는 병실로 하얀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둘러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수술 후 산 중턱에도 못 오르던 내가 점차 체력이 회복되어 몽블랑,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낭가파르бат 등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40년 전 결혼하기 위해 다니기 시작했던 이곳 광림교회에서 부족한 나에게 9선교구연합회장이라는 직분까지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교회의 종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주님은 어릴 적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를 울려 그때부터 이미 나를 불러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며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 주셨고 수술 당일 천군 천사를 앞세워 희망의 종소리를 울려 주셨던 것이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소리로 새벽마다 나를 깨우신다. 더욱 기도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라고!



신오철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9선교구연합회장)

국내외 선교에 앞장서는 남선교회가 되자

2월 21일, 2021년 <남선교회 신년예배 및 임명식>개최



2021년 한 해 동안 남선교회총연합회의 직분 받은 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신년예배 및 임명식>이 2월 21일 주일 광림교회봉사관에서 열렸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이행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각 선교구 연합회장 및 개체선교회장 등이 참석하여 올 한해 광림교회가 표어인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교회도 복음전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 선교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미전도 종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들에 대한 선교가 일어났다.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

가 되었고,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남선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의 재단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0년을 결산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한 선교회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우수선교회연합회는 1, 3, 6, 11선교구, 우수교구는 3, 4, 15, 21교구, 우수개체선교회는 3-2바울, 5디모데, 9스테반, 11-1바울, 13-1바울, 17바울, 21디모데, 24웨슬레, 26스테반, 29-2디모데, 33-2바울, 51웨슬레, 53-2웨슬레가 각각 선정되었다.

올 한해 남선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할 운영위원, 본부임원, 선교구 연합회장, 교구회장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이어졌으며, 각 교



구에서 스테반선교회를 위해 지원하는 ‘스테반 멘토’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특별히 금년부터 개체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테반을 비롯 디모데, 바울 및 웨슬리센터장에 대한 임명장도 함께 수여되었다.

2021년도 남선교회 사업일정표에 대해 총연합회장 박기연 장로는 “남선교회의 본분은 선교의 선봉에 서는 것이며, 각 개체선교회장, 교구회장, 선교구연합회장이 대표가 되어 오늘 임명장을 받게 되었다. 쉽게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 개체선교회가 평소 잘 모이고 있으면 코로나에서 벗어났을 때 빠른 시일내 쉽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선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11

존 웨슬리의 데스 마스크



존 웨슬리의 데스 마스크

광림 헤리티지 & 비전 홀의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데스 마스크(death mask)입니다. 데스 마스크란 사람이 죽은 직후에 밀랍이나 석고로 얼굴을 본떠서 만든 안면상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본뜬 것은 라이프 마스크(life mask)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죽음 직후 데스 마스크를 만들었으며, 이 마스크를 보며 죽은 후에도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19세기 이후 사진 기술이 발전되고 보급되면서 더 이상 데스 마스크를 만들지 않아도 죽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존 웨슬리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굴을 본뜬 조각품이나 도자기를 남겼는데, 당시 존 웨슬리의 조각상이나 초상화는 많은 감리교인들에게 가보처럼 여겨지며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는 다른, 웨슬리의 신앙과 삶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존 웨슬리에 대한 기념물 중에 단연 최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데스 마스크입니다. 원본은 영국 런던 웨슬리 채플(Wesley's Chapel)의 감리교회 박물관에 있으며, 세계에 단 두 개밖에 없는 복사본은 미국의 드류대학과 광림교회 헤리티지 & 비전 홀에 있습니다.

웨슬리 채플은 공식적으로 세계에 존 웨슬

리 목사님의 데스 마스크는 단 세 개이며, 더 이상의 복사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제작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공헌과 웨슬리 채플과의 협력에 대해 감사하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데스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김선도 감독님은 1974년, 영국의 엡섬감리교회(Epsom Methodist Church) 교환목회 이후 영국 감리교회와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데스 마스크 기증은 우리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에 큰 영광이자 한국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는 값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2014년 6월, 영국을 방문하여 우리교회 미술인 선교회의 작품을 기증하고 웨슬리 채플 내에 ‘광림룸(The Kwanglim Room)’을 개관하며 두 교회의 우애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슬리 채플을 방문하면 1층 로비에 있는 김선도 감독님의 흉상과 2층 광림룸에 있는 미술인 선교회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청년부 <미래시대와 청년목회>

2월 23일, 제1차 감리교 청년목회자 포럼 광림교회에서 열려

지난 2월 23일(화) 광림교회에서 서울남연회 청년부와 위원회(최상일 감리사)와 광림교회 청년부가 주관하고, 서울남연회가 주최하는 제1차 감리교 청년 목회자 포럼이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 선교에도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 목회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년세대와 현시대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전략을 세우며, 사례발표를 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되었다.

포럼에 앞서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롬16:25-27)라는 주제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듯이, 기독교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청년 세대에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강의는 강성모 청년(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과정, 3교구 교구장)이 ‘밀레니얼과 Z세대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MZ세대는 디지털화된 세대로 그 특징을 초개인화, 가치 소비, 표현 3가지로 규정하고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강의는 황인권 대표(인권앰배서더스)가 ‘현시대 트렌드 분석과 목회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황 대표는 미국의 아웃



리치 잡지에 소개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통적인 한국교회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설명했고, 글로벌 트렌드에 친숙한 청년세대에게 소통이 가능한 언어와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지영 목사(하나비전교회), 이광진 목사(필그림교회), 유재일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주승 목사(광림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목회를 진행하였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발표했으며, 김영석 목사(배화교회)와 하정완 목사(꿈이 있는 교회)가 논평했다.

김영석 목사(배화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 목회자들을 격려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을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 근사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청년들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 회심과 삶의 전환이 발생할 때 청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하정완 목사(꿈이 있는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 영성의 위기임을 지적하면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을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가오는 5월에 두 번째 포럼에서는 감리교 청년 목회자 포럼이 서울남연회를 넘어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청년 부흥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주님이 어루만져주세요”

2021 새학기 새벽기도회 은혜롭게 마쳐



광림교회학교는 2021년 새학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새학기 새벽기도회를 2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 온라인방송과 나사렛성전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새학기 기도회는 ‘어루만짐’이라는 주제(막10:13,16)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교회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었다.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기도회 기간 동안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참석한 부모들, 친구들과 함께한 중고등부 학생들,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로 함께한 성도들에게 김호영 목사는 “성령의 어루만짐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자녀가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세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캄캄한 밤 가운데 있었던 다툼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흐릿한 시선을 주님을 향한 또렷한 시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라고 축복했다.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

이번 새벽기도회 동안 올해 중학생이 된 서찬영 학생이 형 서준영(청년부)성도와 드럼과 키보드로 찬양 반주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서찬영 학생은 “전도사님께서 드

럼반주를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경험이 없어 주저했어요. 찬양팀 반주를 오래해 온 형이 함께 한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틀리지 않으려고 형과 연습하니 좋았습니다. 또한 실력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희윤 집사(22교구)는 “다은이(초등부), 다해(유년부)와 함께한 기도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힘겹게 일어나면서도 새벽기도로 기쁘게 향하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어루만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과 말씀, 기도로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아이들이 새 학기를 담대하고 지혜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신앙 간증

친밀한 교제

안녕하세요.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 1교구 속장 정예영 청년입니다. ‘속원들의 삶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바뀌지 않고 변화는 없을까?’ 저에게 숙제같은 기도제목이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더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화목한 관계를 위해 오셨는데 왜 우리 속회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 속상 하기도 하고 때론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다보니 하나님은 제게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샤이닝 스쿨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표현이 있듯 어른의 행동, 습관, 말투의 어떤 모양이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아이가 바뀌길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어른이 바뀌면 됩니다. 간단한 흐름을 내게도 비추어보니 속원들이 바뀌지 않는 건 내가 바뀌지 않아서임을, 속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돌아보고 목사님 말씀하신 온타임 묵상과 20분 기도에 힘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어려운 속원들의 삶과 비대면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단숨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함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제 삶은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지고 평소에 즐겨보던 예능이 재미가 없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구절이 떠올라 지혜를 얻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작정이라도 하신듯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속회에서 나는 지난주 기도제목이 이번 주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내 삶을 바라보니 이것이 친밀한 교제이고, 복음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곱씹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 말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과 저와의 이 친밀한 교제가 속원들에게도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속회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므로 앞으로의 간증을 청년의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예영 속장(청년부)

목사님, 명함 보여 기도해주세요

- 목회현장 -



오세우 목사 (8선교구)

1975년 5월 16일, 한 여성이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해발 8848m)을 밟았습니다. 150cm의 작은 키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의 이름은 다베이 준코. 등정 당시 세 살 딸을 둔 35세 주부였습니다. 1975년에 도전한 에베레스트는 순탄치 않았습니...

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한 장 가지고 있었던 딸의 명함을 제 손에 쥐어 주시면서 “목사님, 주머니 속에 명함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딸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었는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예배당 앞에서 마주친 한 성도님께서 딸이 직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한 장 가지고 있었던 딸의 명함을 제 손에 쥐어 주시면서 “목사님, 주머니 속에 명함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딸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었는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사랑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자신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학기 새벽기도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광림남교회〉



2월 22일(월)~2월 27일(토)까지 광림남교회에서 새학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쌀쌀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온 세대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회복하라”(사40:1~11)는 주제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와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세대가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한 자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특권을 누리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보석 전도사(광림남교회)

꽃꽂이 선교회, 기쁨과 감사 은혜의 시간

〈광림서교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광림서교회 성전을 365일 봄으로 가득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림서교회 꽃꽂이 선교회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함께 모여 양재 꽃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꽃을 구입하고 교회에 도착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꽃을 정리하고 새 꽃을 다듬으며 기도하는 마

음으로 꽃꽂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꽃꽂이 준비와 작업에 온 시간을 쏟는데, 회원 모두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꽃꽂이 선교회 회장을 맡은 장선희 집사는 “꽃꽂이 선교회를 통해 신앙이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교회 봉헌 초반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봉헌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현숙 권사는 “꽃꽂이를 하는 이 시간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함

니다.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꽃꽂이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영숙 집사는 “꽃꽂이 선교회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몸에 역량이 다 다르듯이 회원들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진행함으로 아름답게 운영되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꽃꽂이 선교회는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부탁드립니다.

✚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광림북교회, 구급차량 안에서 세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막2:4)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중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들은 바로 노인과 중증환자, 요양시설 입원 환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지내기 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저의 모친 안금이 성도는 작년 가을 뇌경색과 뇌졸중, 고관절 골절과 급성폐렴 등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요양병원을 오가며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천국 가기 전 병상 세례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목사님의 병원출입이 완전 차단되고, 가족들의 면회조차 금지되어서 애 태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2장 4절 중풍병자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병상에 누운 환자를 달아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했듯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에게 병상 세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대형병원에 이송하여 정밀진단과 집중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송 중에 구급차량에서 병상 세례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민간 구급차량 안에서 북교회 황영재 목사님과 조양식 전도사님 주관 하에 병상 세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후 호흡곤란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되었고, 어머니는 당일 바로 퇴원하여 다시 요양원으로 옮겨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참으로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중에서도 믿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믿고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 김영문 권사(광림북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학교로 오세요”

초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실천적 신앙교육의 장으로



“샤이닝 스쿨에서 가야금을 배우면서 국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5학년 박지윤, 유아인)

“친구와 함께 펜싱을 배우는데 너무 즐거워요!”
(3학년 김유하, 박성원)

“맛있는 간식 시간이 기다려져요.”
(6학년 장조이)

아이들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에 푹 빠져 샤이닝 스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림 샤이닝 스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요일~금요일 방과 후 오후 6시 40분까지 진행되는 주중 돌봄 프로그램이다. 광림교회는 샤이닝 스쿨 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인 광림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샤이닝 유스를 통해 모태에서 천국까지 전 생애, 전인적 목회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르치는 실천적 신앙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일을 돕고 있다.

말씀을 배우고 이웃사랑 실천해요

샤이닝 스쿨 어린이들은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한 예배’는 하나님 자녀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배공동체로 세워나간다. 이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어지며 부모와 자녀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성경을 배우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배운다. ‘떡, 복, 이 프로젝트(떡과 복음이 이곳에)’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신사동 일대를 돌면서 손수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해요

샤이닝 스쿨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여러 군데 학원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샤이닝 스쿨 울타리 안에서 30여개의 강의를 들어보고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영어, 수학 등 필수교과 수업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캐리커처 그리기, 성경미술, 장구, 가야금, 바이올린, 피아노, 펜싱, 태권도, 발레,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수업이 마련되어있다.

지난 2월 특별활동 시간 ‘미션데이’에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와 부룬디 현지인 목사를 초청해 각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듣고 비전을 나눴다. 이외에도 자전거 여행, 딸기밭 체험 등 야외활동을 하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여름과 겨울에는 야외텐트캠핑, 스키캠프를 진행한다.

성도들의 재능 나눔과 봉사

샤이닝 스쿨은 교회학교와 선교구, 청년부, 가정 간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10명의 담임교사와 50명의 강사는 재능나눔과 봉사로 섬기고 있다. 청년부에서 교과과목과 악기수업, 직업 특강을 하며 선교구에서 매일 두 명씩 엄마의 사랑을 담아 정성껏 간식 봉사로 섬긴다. 직업 특강에는 지금까지 30명 이상 의사, 변호사, 금융,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전문인들을 초청하여 특강도 진행했다.

샤이닝 스쿨은 다양한 수업에 헌신할 교사와 아이들의 이동을 도와줄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임재철 목사(샤이닝스쿨)는 “샤이닝 스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운동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과 지역 사회에 충만하여 흘러가도록(overflow)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문의: 010-5183-8014 (임재철 목사)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OVERFLOW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행 13:52)



광림샤이닝스쿨
INTERNATIONAL KWANGLIM
SHINING SCHOOL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32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4:20)

”

그 대화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극과 극으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대하 3:1 이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에서 예배와 제의를 드렸다면, 예루살렘의 시온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듯이 그 산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 산 위에 성전을 짓고 제의를 드린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요세푸스(37~약 100CE)라는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는 그리스 산의 성전이 알렉산더 대왕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노력으로 그리스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산의 성전 터로 추정되는 지역을 20년 넘게 발굴하면서 1만7천 개 이상의 금화와 은화들을 발굴했고, 수천 점의 토기와 양, 염소, 소, 비둘기의 뼈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

한 두 개의 성전 터를 발견하였는데요. 그 중 오래된 성전은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말한 때 보다 대략 1세기 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참조. 다른 성전은 기원전 2세기에 건축되었음). 이 시기는 에스라-느헤미야와 동시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로 와서 대략 12년을 있었습니다(445~433BCE). 그리고는 유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잇고 살았던 율법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느헤미야의 모든 수고는 헛것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의를 돕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유다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유다에 비해서 그 제의나 율법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율법과 예배의 체계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문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의 공백 시기 때 제대로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하여 살 길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받아들여 그리심 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을 사마리아의 가장 거룩한 성소로 삼은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성전과 그 주변의 마을들의 규모를 토대로 그리심 산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주거 지역과 제의 구역의 면적이 대략 400두남(약 12만평)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것이지요(약 1만명).

사마리아의 제의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서는 사마리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못지 않은 권위를 가진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세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율법을 고쳐 썼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읽는 성경인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이 탄생합니다.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들의 성경은 매우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신학적인 대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신앙의 토대로 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그 내용이 동일한 우리 말 성경의 십계명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뒤에 내용을 첨가하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회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 산에 세우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위한 돌제단을 만들어라. 제단 위에는 철을 두르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너는 제물을 드리고 그 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한다. 너는 요단 건너편 해지는 곳 길갈 앞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세겜 앞의 모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에 소개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그 여인이 들었던 바로 이 사마리아 오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illegible]

The image shows a close-up of an open manuscript. The pages are filled with dense, handwritten text in a Gothic script, organized into two columns per page. The parchment is aged and yellowed. A small yellow circular sticker with the number '2'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image.

사진설명

- 1 사마리아 오경
- 2 그리심 산의 사마리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두루마리(사마리아어)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